

관찰자의 의복태도가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남 미 우 · 강 혜 원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환경학과

The Effect of Perceiver's Attitude on Male Impressions.

Miwoo Nam and Hewon Kahng

Dept. of Clothing & Textiles, Yonsei Univ.

(1995. 10. 29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 of perceiver's clothing attitude on male impressions created by the clothing cues and contexts. In addition, the effect of perceiver's evaluations of clothing appropriateness on male impressions.

The subjects consisted of 256 male undergraduate students and 256 middle aged men.

The experimental materials developed for this study were a set of stimuli and response scales. The stimuli were 8 color photographs of drawings of a male figure in clothing which were manipulated in two levels, each of three clothing cues including type, style and color. The experimental design was full factorial design of 2(context×clothing type×clothing style×clothing color). Each of the 16 sub-samples includes 16 subjects from the two perceiver group. Questionnaires used to measure perceivers responses to the stimuli were 7-point semantic differential scales composed of 37 bipolar adjectives representing personal traits. Four aspects of clothing attitude(fashion interest, status symbols consciousness, clothing conformity, practicality & comfort)were used to classify subjects into groups of 20 five-point likert type questionnaires adapted from the previous research.

Clothing appropriateness were developed 5 point likert scales for evaluation of a stimulus person in each context.

The data was processed by factor analysis, ANOVA, multiple classification analysis, Duncan's multiple range test, cluster analysis, MANOVA and pearson's product moment correlations.

The major findings drawn from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Perceiver's clothing attitude influenced impression formed by the social contexts and clothing cues. In three groups classified by their clothing attitude, the status symbol-oriented group was most affected by the social contexts and clothing cues.

2. Perceiver's evaluation of clothing appropriateness was related with impressions by a stimulus person.

In summary the effect of contexts and clothing cues on impression formation varied according to perceiver's clothing attitude and clothing appropriateness.

I. 서 론

의복은 착용자의 가치관, 생활양식, 그 시대의 이념, 과학기술의 발달,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관등을 반영하는데 현대의 생활양식과 성역할의 변화는 활동성의 강조와 함께 전형적이고 한정된 의복형태와 색에서의 변화를 시도하게 되었다. 의복은 첫인상형성과정에서 상대방을 판단하는 외적인 단서로 작용하며 이때 의복의 상징적인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 시대나 문화에 따라 변화되는 것을 볼때 현재의 남성복 변화에 대한 연구는 남성의복의 규범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것이다.

한편 최근의 여성들의 직업진출기회의 확대로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직장면접상황에서 의복의 적절성이 착용자의 성격추론 및 고용여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의복을 통한 대인지각과정에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의복단서의 의미 전달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남성의복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필요하다.

또한 동일한 의복이라도 관찰자에 따라 다르게 지각될 수 있다. 그이유는 지각자는 나름대로의 흥미, 내적 욕구 기대가 다르고 또한 독특한 과거경험에 따라 판단기준이 다르며 지각하는 방법과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타인에 대한 인상형성에 있어서 지각자 자신의 영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인상형성연구에서는 관찰자 변인으로서의 단일차원의 의복관심, 민감성, 성별, 연령, 직업 등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해왔다. 그러나 의복관심이 다차원적인 개념²⁾으로 구성된 것을 볼때, 의복의 여러측면에 대한 관심이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황과 의복단서에 의한 인상형성에 있어서 응답자의 의복에 대한 태도의 영향을 규명한다. 둘째,

착용자 의복의 상황적 적절성과 응답자의 의복 착용자에 대한 선호 및 유행성 평가가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대인지각과정과 귀인이론 및 의복의 상황적 적절성에 관한 연구논문들을 고찰하였다.

1. 대인지각의 과정

Schneider²⁾등은 대인지각과정에 대한 6단계이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각 단계에서 인상판단의 단서로 작용하는 자극과 인상판단 내용이 다르며 선행단계의 인상판단은 후속단계의 인상판단을 활성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대인지각의 6단계중 제1 단계는 주목(attention)단계로서 이때의 자극은 외모, 행동, 맥락이며 대인지각 결과는 입수된 정보단서에 대한 선택 및 유목화이다. 한편 단서의 선택은 지각자의 가치와 흥미 맥락에서 단서의 특출함(distintiveness)에 영향을 받는다. 제2 단계는 즉각적 판단(snap judgement) 단계로서 자극은 제1 단계에서 선택유목화된 외모, 행동이며, 결과는 즉각적 정서반응(호감, 매력, 거부감)또는 고정관념에 따른 판단이다. 제3 단계는 원인 귀속단계로 이때의 자극은 지각대상자의 행동단위들이며, 그 결과는 지각대상자의 성격, 특성, 의도, 능력에 대한 원인귀속이다. 성격특성에 대한 원인귀속은 제4 단계(성격 특성 추측 단계)의 자극으로 사용되며 피지각자가 지녔으리라고 생각되는 기타 특성들을 추측하게 된다. 이 특성은 다시 제5 단계 인상형성 단계에서 자극으로 사용되며 지각자는 피지각자에 대해 전반적이며 조직화된 판단 및 평가를 내리게 된다. 제6 단계에서는 앞의 5단계의 대인지각결과들이 모두 자극으로 사용되어 지각대상자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리라는 예측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인상형성의 각 단계에서 작용하는 인상판단의 단서는 달라지게 되는데 지각대상자의 외모 또는

사회적 맥락안에서 의복을 착용하는 행위는 대인지각의 전체과정에 걸쳐 타인에 대한 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로 작용한다.

1) 자극단서의 특출성

사람들은 모든 자극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어떤 것은 무시한다. 즉 여러 단서중 전경 (figure)으로 부각되어 지각자의 주의를 끄는 단서는 특출성 (salience)과 생생함 (vividness)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들이다. 특출한 자극단서는 지각자의 주의를 강하게 끌기때문에 행동의 가장 강력한 원인으로 귀인되고 극단적인 평가를 하게 되며 또한 평가는 응집성과 일관성을 띄게 된다^{3,4)}.

한편 부정적인 특질은 두드러진 단서로 작용한다. 의복에서 두드러진 단서는 의복규범에서의 이탈, 더러운 옷, 구김살이 많은 옷, 몸이 지나치게 노출된 것, 지나치게 최신유행형, 유행이 지난 것, 너무 크거나 작은 것, 색배합이 잘되지 않은 것, 남다른 옷, 연령이나 성별에 맞지 않는 옷 등이다⁵⁾.

2) 유사성

유사성 가정 (assumed similarity)은 타인을 판단할 때 판단의 대상자가 자신과 비슷하다고 가정하고 판단하려는 경향이며 자신과 비슷한 경우에 더 정확하게 판단하거나 매력적으로 지각하였다. Pinaire-reed⁶⁾는 여대생 피험자를 4가지 의복 스타일 (high, mass, low, counter fashion)의 착용자로 구분하여 각각의 의복스타일을 착용한 자극물에 대한 매력도를 평가하게 한 결과 피험자 의복스타일이 자극물과 유사할수록 자극물을 매력적으로 평가하였다. Buckley와 Roach⁷⁾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일을 같이 하기로 계획된 모르는 파트너의 매력을 느끼는데 3가지 변인(유사한 태도, 유사한 의복, 매력적인 의복)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매력을 느끼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태도의 유사성이었고 다음으로 의복의 유사성이었다. 한편 매력적인 의복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 첫인상 형성과정에서 상대방의 태도는 알 수 없으므로 의복의 유사성에서 오는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해석을 하였다.

2. 귀인이론

귀인 (attribution)은 관찰을 통한 사건 (events)이나 현상의 인과추론 과정이며, Heider는 모든 행위를 환

경적 영향력과 개인적 힘의 두 요소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았다. 개인적 힘은 개인의 능력이나 동기와 같은 어떤 행위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의 기질적 속성이며, 환경적 영향력은 어떤 행위의 수행을 하게 하거나 억제하는 상황적 조건이다. 두가지 요소의 상호작용의 지각에서 내부귀인 할 것인지 외부귀인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고 내부귀인을 할수록 행위자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⁸⁾.

Jones와 Davis⁹⁾는 타인에 관한 귀인을 대응적 추론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다. 타인에 대한 기질적 귀인은 행위자가 여러 대안중에서 특정행위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고 따라서 상황에 의해 강요되지 않는 정도까지 행해진다고 설명한다. 대인지각과정에서 귀인이론은 지각자가 관찰된 타인의 내재된 성향을 추론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¹⁰⁾.

3. 의복의 상황적 적절성

Bixler¹¹⁾와 Fürstenberg¹²⁾는 남자들을 대상으로 상황에 적절한 의복품목을 제시하였다. 직장 사업세계 공적인 분위기에서는 짙은 단일색의 홀사락 정장 (single breasted suit)이 적절하며 직장면접이나 공식적인 식사모임에는 넥타이와 셔츠의 색까지도 가장 보수적이고 격식을 차린것의 선택을 제시하였다. 한편 여가활동에는 개성에 맞는 다양한 의복유형중에서 최대로 즐길 수 있고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의복선택을 권유하였다.

강혜원등¹³⁾은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복의 상황적 적절성에 관한 연구에서 전형적인 신사복차림은 착용목적에 따른 적절성의 차이가 뚜렷하여 결혼식과 직장면접에 가장 적절하며, 한편 최신유행형은 개인에 따른 차이를 보이며 결혼식때 가장 많이 적절하다고 했으나 격식차린 남성의를 규범에 맞지 않으므로 격식차린 상황에는 착용하지 않는것이 부정적 평가를 피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성인남자를 대상으로 한 의복의 적절성 연구¹⁴⁾에서 연령, 직업위세가 높을수록 평상시 formal한 의복을 선호하며, 주로 격식을 차린 의복유형이 적절한 것으로 알려진 착용목적에도 연령이나 지위가 낮을수록 informal한 의복을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였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연구문제의 규명을 위해 준 실험연구 방법으로 접근하였으며, 조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남자 대학생 256명과 중년의 직장남성 256명으로 총 512명이다. 자료수집은 1992년 1월에 이루어졌고 자료수집방법은 실험디자인에 의하여 유행화된 임의표집에 의하였다.

자료분석 방법으로 요인분석, 변량분석 및 MCA (multifactor classification analysis), 군집분석, MANOVA, 피어슨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1) 관찰자의 의복태도에 따라 의복 착용자의 인상형성에 차이가 있을것이다. 2) 의복의 상황적 적절성은 착용자에 대한 인상에 영향을 미칠것이다. 부가적관심으로는 의복 착용자 선호 및 유행성 평가는 착용자의 인상에 영향을 미칠것이다 이었다.

1.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인상을 제시하는 자극물, 이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는 의미미분척도, 그리고 관찰자의 의복태도, 착용자 의복의 상황적 적절성, 의복착용자 선호 및 유행성 평가 문항이 포함되었다.

1) 자극물 및 의미미분 척도

본 연구의 자극물 및 의미미분척도는 선행연구¹⁵⁾에서 사용된 것으로 자극물은 20대 남자 의복착용자의 그림 사진(5×7in) 총 8가지이며 조작된 의복단서는 의복유형, 형태, 색상으로 각기 두수준으로 조작되었다. 각 자극물 번호에 따른 의복단서변인의 조작 내용은 <표 1>과 같으며 유행형 정장은 더블 브레스트(double breasted)이며 기본형 정장은 싱글 브레스트(single breasted)로 기본적인 어깨가 등글며 품이 넓고 기본형은 칼라가 있고 어깨가 꼭 맞으며 장식이 없는 형태이다. 의복 유형별로 유행색과 기본색을 1가지씩 (정장 olive green/navy blue, 캐주얼 보라/beige) 을 설정하였다. 이때 캐주얼의 바지색의 중간색인 회색으로 통제하였고 넥타이는 자극물의 의복색상과 동일하게 하여 넥타이효과를 통제하였다. 착용자의 연령은 응답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20대로 제한하였으며 착용자의 자세 얼굴 표정 머리형태 및 배경은 일정하게 하였다. 자극물 속의 의복착용자에 대한 관찰자의 인상을 측정하는 의미미분 척도는 등간형 7점 척도로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35개의 형용사쌍이었다. 실험디자인은 피험자간 (between-subject) 2*요인설계로 16개 자극물별로 연령에 따른 두 집단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였고 응답자수는 연령집단별로 16명씩 무작위로 배치하였다.

<표 1> 각 자극물의 의복단서 조작내용

자극물 번호	의복 단서 조작 내용					
	의복 유형		의복 형태(S)		의복 색상(C)	
	정 장(S)	캐주얼(J)	유행형(F)	기본형(B)	유행색(F)	기본색(B)
S S _F C _F	V		V		V	
S S _F C _B	V		V			V
S S _B C _F	V			V	V	
S S _B C _B	V			V		V
J S _F C _F		V	V		V	
J S _F C _B		V	V			V
J S _B C _F		V		V	V	
J S _B C _B		V		V		V

의복유형 : S(suit), J(jumper차림)

의복형태 : S(style)

의복색상 : C(color)

F, B : 자극물의 유행성 차원의 조작 수준 F(fashionable), B(basic)

2) 의복태도

의복태도는 의복을 선택하고 착용하는 행위에서 나타나는 관심과 중요성으로 본 연구와 관련된 4개변인을 포함하였다.

(1) 유행관심

의복선택시 최신유행경향을 고려하여 유행과 보조를 맞추려는 것을 의미한다.

(2) 신분상징성

의복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표시이며 좋은 의복이 지위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보는 성향을 의미한다.

(3) 실용·안락감

의복의 선택, 착용, 관리에 있어 시간 경비 노력등을 절약하는 의복의 관리성과 착용시의 편이성 및 안락성을 중요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4) 동조성

자기가 속해있는 집단에서 받아들여지는 의복을 입으려는 성향을 의미한다.

각 변인마다 선행연구¹⁶⁻²¹⁾에서 일관성있게 신뢰도 계수가 높았던 문항을 6문항씩 선택하여 예비조사에서 요인분석과 내적합치도를 산출하여 문항을 제거하거나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5문항씩 선정하여 남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응답하기 쉽도록 수정하여 본조사용 의복태도 문항으로 첨가하였다.

3) 상황의 선정 및 상황적 적절성

선행연구들^{13,14,22)}의 결과와 함께, 남자대학생 19명에게 의복착용기준을 변화시킬수있는 상황을 자유응답으로 기술하도록 하여 2명이상이 응답한 상황을 비교 검토하여, 의복의 규범 또는 격식차림정도에 차이를 보이는 6가지 사회적 상황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격식차림 상황에는 면접시험, 결혼식, 평상시 직장출근상황이 포함되고, 격식차리지 않은 상황에는 학교등교, 주말의 가벼운 외출(영화관람), 스포츠나 쇼핑의 착용상황이 포함되었다.

한편 자극물과 함께 제시되는 상황은 의복의 격식차림 정도에 차이를 보이는 면접시험과 주말의 외출상황을 선정하여 면접시험상황의 지시문은 '그림속의 남자는 20대로서 면접시험에 가는 모습입니다'이며, 주말의 외출상황의 지시문은 '그림속의 남자는 20대로서 주말에 영화관에 가는 모습입니다'로 구성되었다.

의복의 상황적 적절성은 남자의복의 상황에 따른 적절한 의복규범이 존재하는가를 측정한다. 응답방법은

제시된 자극물을 보고 각 상황에 적절한 정도를 등간형 5점척도(1점 : 아주 적절하지 않다~5점 : 아주 적절하다)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자극물의 적절성 점수는 각 착용목적에 적절한 정도를 나타낸다.

4) 의복착용자 선호 및 유행성평가

의복착용자 선호평가 문항은 '내맘에 든다 - 내맘에 들지 않는다'이며 유행성평가 문항은 '유행을 따른다 - 유행을 따르지 않는다'로 구성되었다. 의미미분척도와 혼합하여 함께 제시하여 응답자에게 평가하도록 하였고 분석시에는 별도로 처리하였다. 각 문항은 등간형 7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극물의 의복착용자가 내맘에 들거나 유행을 따른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IV. 결 과

가설 검정에 앞서 남자의복착용자에 대해 형성되어지는 인상의 내용을 살펴보고 후속분석을 위한 적은 수의 변수로 축소하기 위하여 의미미분척도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를 요인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주성분 분석회형과 varimax회전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선행연구¹⁵⁾에서와같이 응답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3개요인이 도출되었다. 요인 I은 평가요인으로 품위에 관련된 특성, 호오·화친평가특성, 지성적 평가 특성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II는 활동성요인으로 명명되었고 행동특성과 태도특성이 함께 묶였다. 요인 III은 독특성요인으로 명명되었고 행동특성과 성격특성이 함께 도출되었다.

한편 두개이상의 요인특성을 갖는 형용사쌍(적극적이다 - 소극적이다, 촌스럽다 - 세련됐다, 매력있다 - 매력없다, 사교적이다 - 사교적이지 않다, 멋있다 - 멋없다)들은 이후의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도출된 인상의요인의 Cronbach의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대부분 $\alpha = .70$ 이상의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가설검정의 규명을 위한 분석에 사용된 요인점수는 전체 응답자의 응답에 대한 요인분석결과에 따라 회귀모델(regression model)을 사용하여 계산하였으며 결과해석은 요인점수가 높을수록 평가요인에서는 보다 품위있고 보기 좋으며 호감이 가고 지성적인 사람으로, 활동성요인에서는 보다 활동적이고 권위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독특성요인에서는 보다 눈에 띄고 외향적인 사람으로 지각됨을 의미한다.

<표 2> 의복착용자로부터 도출된 인상요인

요인 I : 평가요인		요인 II : 활동성요인		요인 III : 독특성요인	
형용사	부하치	형용사	부하치	형용사	부하치
폼위없다 - 폼위있다	.793	활동적이다 - 비활동적이다	-.719	눈에 띄지 않는다 - 눈에 띈다	.696
지성적이지 못하다 - 지성적이다	.783	권위적이다 - 권위적이지 않다	.678	남들과 다르다 - 남들과 비슷하다	.547
보기 싫다 - 보기 좋다	.782	융통성없다 - 융통성 있다	.677	개성없다 - 개성 있다	-.546
인상이 좋지 않다 - 인상이 좋다	.767	정적이다 - 동적이다	.606	외향적이다 - 내향적이다	.546
경박하다 - 신중하다	.730	형식적이다 - 형식적이지 않다	.587	소심하다 - 대담하다	.538
믿음직하지 못하다 - 믿음직하다	.717			보수적이다 - 진보적이다	-.521
성실하지 않다 - 성실하다	.711			강하다 - 약하다	-.308
예의바르다 - 예의없다	-.695			우유부단하다 - 결단력 있다	
호감이 간다 - 호감이 가지 않는다	-.668				
점잖다 - 점잖지 못하다	-.667				
능력없다 - 능력 있다	.644				
어울린다 - 어울리지 않는다	-.608				
충동적이다 - 자제력 있다	.560				
인기 있다 - 인기 없다	-.484				
사무적이지 못하다 - 사무적이다	.470				
전문적이지 못하다 - 전문적이다	.436				
남성적이다 - 여성적이다	-.379				
총변량에 대한 설명력	25.7%		17.3%		5.4%
총 설명력	48.4%				

1. 응답자의 의복태도가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1) 의복태도에 따른 집단의 유형화

응답자의 의복태도가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전체응답자를 의복태도 변인에 의하여 비슷한 성향을 갖는 몇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집단

분류방법은 응답자들의 4개 의복측면에 대한 평균점수를 기초로 군집분석하였다. 집단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결과에서 나온 의복태도변인간의 관련성을 참고로 하여 예측집단수(3, 4, 5개)를 결정하고 각 집단별로 응답자들의 빈도를 산출하였으며 또한 4개 의복태도 변인마다 유의적인 차이가 나는 것을 <표 3>과 같이 일원변량분석과 던컨의 다중비교 검정하였으며, 그

<표 3> 세집단간의 의복태도 각 변인의 차이검정

집단구분	의복태도 평균	유행관심		동조성		실용·안락감		신분상정성	
		평균	집단구분	평균	집단구분	평균	집단구분	평균	집단구분
유행추구집단 (N=97)	3.64	a	3.37	b	3.15	c	2.91	b	
실용·안락감추구집단 (N=125)	2.33	c	3.78	a	4.06	a	2.27	c	
신분상정추구집단 (N=286)	3.01	b	3.21	c	3.93	b	3.19	a	
f-값		210.00**		41.67***		153.58***		174.78***	

* p<.05 ** p<.01 *** p<.001
a, b, c : 평균점수에 차이가 나는 집단.

결과 3개 집단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전체 응답자를 3개 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검정은 4개 의복태도변인을 동시에 고려할 때 3개 집단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가를 다변량분석(MANOVA)을 사용하여 검정하였고 그 결과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에서와 같이 세집단간의 의복태도 각 변인의 차이검정결과에서 유행관심은 집단 1이 가장 높고 집단 2가 가장 낮았다. 동조성은 집단 2가 가장 높고 집단 3이 가장 낮았다. 실용·안락감은 집단 2가 가장 높고 집단 1이 가장 낮다. 신분상징성은 집단 3이 가장 높고 집단 2가 가장 낮았다. 따라서 3개로 구분된 집단의 특성의 차이를 각 의복태도 변인의 평균치와 던컨의 다중 비교 검정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명명하였다.

집단 1: 다른집단에 비하여 유행관심이 높고 실용·안락감은 낮았으며 유행추구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집단 2: 동조성과 특히 실용·안락감이 높고, 한편 유행관심과 신분상징성은 낮았으며 실용·안락감 추구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집단 3: 다른집단에 비하여 신분상징성이 가장 높고, 동조성이 가장 낮았으며 신분상징 추구집단으로 명명하였다.

한편 이들 세집단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는 뚜렷하게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유행추구집단은 전체의 19.1%를 차지하며 중년층보다는 대학생들이 많았고, 신분상징 추구집단은 전체의 56.3%로 대학생보다 중년층이 더 많았다. 또한 실용·안락감 추구집단은 전체의 26.4%로 유행추구집단이나 신분상징 추구집단보다 경제수준이나 학력이 낮았다.

2) 의복태도에 따른 집단별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상황 및 의복단서의 영향

세개의 집단(유행추구집단, 실용·안락감추구집단, 신분상징추구집단)별로 상황 및 의복단서(유행, 형태, 색상)가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하여 4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의복태도가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4원변량분석 결과로부터 독

<표 4> 유행추구집단에서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상황 및 의복단서의 영향^{a)}

N=95

분석 방법	요인		평가 요인		활동성 요인		독특성 요인	
	독립 변인		F값		F값		F값	
4원 변량 분석	상황		5.76*		.58		1.63	
	의복단서: 유행		2.81		22.97***		3.15	
	형태		1.65		10.96**		19.15***	
	색상		0.02		0.15		0.18	
	변인	수준	평균값차	ETA계수	평균값차	ETA계수	평균값차	ETA계수
M	상황: 면적 주말의출		-.28		.06		.18	
			.21		-.04		-.14	
C	의복유형: 정장 케주얼		.14		-.41		.20	
			-.14		.40		-.20	
A	의복형태: 유행형 기본형		.14		.40		.21	
			-.11		.22		.34	
	의복색상: 유행색 기본색		.17		-.32		-.51	
			.03		.26		.42	
			.03		.11		.04	

* p<.05 ** p<.01 *** p<.001

a: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효과만을 제시하였음.

립변인의 영향을 집단별로 비교함으로써 검정하였다.

(1) 유행추구집단

<표 4>는 유행추구집단에서 상황 및 의복단서가 착용자의 인상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며 의미있는 영향을 나타낸 것은 상황은 평가요인에, 의복유형은 활동성요인에, 형태는 활동성과 독특성요인에 영향을 미쳤으나 색상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착용자의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단서를 Eta계수를 비교해볼때 평가요인에는 상황이, 주말외출에서 긍정적인 평가적 인상을 받았다. 활동성요인에는 의복유형이 가장 강한 영향을 미쳤고 다음으로 형태의 영향이 컸다. 즉 캐주얼이거나, 유행형일때 활동적으로 지각되었다. 독특성요인에는 의복형태의 영향이 크며 유행형이 독특한 인상을 주었다.

(2) 실용·안락감 추구집단

실용·안락감 추구집단에서 상황 및 의복단서가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표 5>와 같다.

의미있는 영향을 나타낸것은, 상황과 의복유형이 활동성요인에, 의복형태는 평가요인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의복유형과 형태는 상호작용하여 독특성요인의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 착용자의 인상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단서는 평가요인의 경우 형태였으며 기본형이 긍정적인 평가적 인상을 주었다. 활동성요인에는 의복유형의 영향이 컸고 다음으로 의복형태였으며 캐주얼이거나 유행형일때 활동적으로 지각되었다. 독특성요인에서 의복유형과 형태의 상호작용의 경우 정장과 캐주얼은 의복의 형태(유행형/기본형)에 따라 서로 상반되는 반대의 인상을 받으며, 캐주얼의 경우는 형태에 따른 차이가 적었으며 유행형이 독특하지 못한 인상을 주었다. 반면 정장에서 기본형은 독특하지 못한 인상을, 유행형은 독특한 인상을 주었다.

(3) 신분상징추구집단

신분상징추구집단에서 상황 및 의복단서가 착용자의 인상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5> 실용·안락감 추구집단에서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상황 및 의복단서의 영향^a N=125

분석 방법	독립 변인	요인	평가 요인 F값	활동성 요인 F값	독특성 요인 F값
4원 변량 분석	상황		.54	7.18**	.39
	의복단서 : 유형		.27	42.78***	.52
	형태		20.04***	2.39	3.29
	색상		.06	2.15	.03
	유행×형태				15.21***
	변인	수준	평균값차 ETA계수	평균값차 ETA계수	평균값차 ETA계수
M	상황 : 면접 주말외출		.07	.20	.04
			-.07	-.21	-.05
C	의복유형 : 정장 캐주얼		.07	.19	.05
			.12	.54	.03
A	의복형태 : 유행형 기본형		.13	-.65	.03
			-.10	.51	-.03
			.40	.21	.15
			.04	.19	.01
	의복색상 : 유행색 기본색		-.05	.19	.01
			.05	.16	.01

* p<.05 ** p<.01 *** p<.001
a :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만을 제시하였음.

<표 6> 신분상징추구집단에서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상황 및 의복단서의 영향*

N=286

분석 방법	요인		평가 요인 F값	활동성 요인 F값	독특성 요인 F값		
	독립 변인						
4원 변량 분석	상황		4.52*	6.56*	7.72**		
	의복단서: 유형		12.86***	86.06***	1.27		
	형태		20.56***	1.35	49.54***		
	색상		1.71	0.70	3.65		
분석	상황×유형		15.03***	5.34*	4.16*		
	유형×형태		4.60*				
	형태×색상		4.53*				
M C A	변인	수준	평균값차	ETA계수	평균값차	ETA계수	
	상황	면접	-.13		.14		.16
		주말외출	.13		-.14		-.16
				.13		.15	.16
	의복유형	정장	.19		-.44		.07
		캐주얼	-.20		.48		-.08
				.19		.48	.07
	의복형태	유행형	-.25		.05		.40
		기본형	.25		-.04		-.39
				.25		.05	.39
의복색상	유행색	.09		-.06		.11	
	기본색	-.07		.05		-.09	
			.08		.05	.10	

* p < .05 ** p < .01 *** p < .001

a: 상호작용요인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것만을 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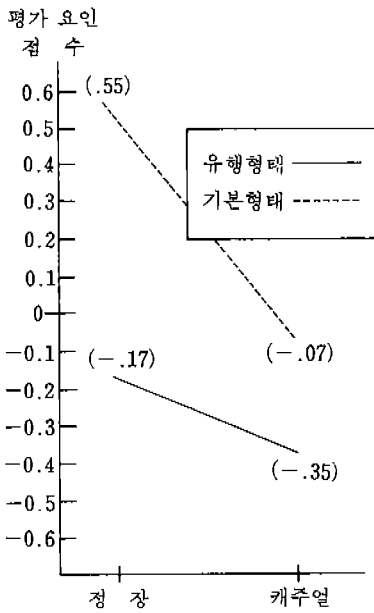
상황은 세요인 모두에 영향을 미쳤고, 의복유형은 평가요인과 활동성요인에, 의복형태는 평가요인과 독특성요인에 영향을 미쳤으나, 의복색상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착용자의 인상에 가장 영향을 미친 것은 Eta계수로 비교해 볼때 평가요인과 독특성요인에는 의복형태가, 활동성요인에는 의복유형이 강한 영향을 미쳤다. 독립변인의 수준에 따라 평균값의 차를 비교하면 면접상황에서는 부정적인 평가적 인상을 주었으나 활동적이며 독특한 인상을 주었다. 정장은 긍정적인 평가적 인상을 주었으나 비활동적으로, 기본형은 긍정적인 평가적 인상을 주었으나 독특하지 않은 인상을 주었다.

신분상징추구집단에서의 유의적인 상호작용과는 모든 요인에서 상황과 의복유형의 상호작용이 나타났고, 또한 평가요인에는 의복형태가 유형 및 색상과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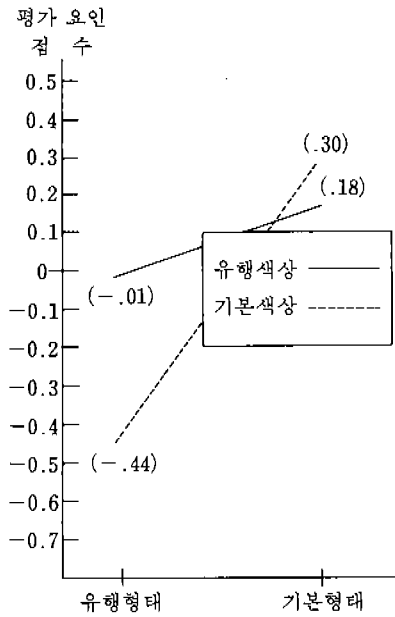
용하여 영향을 미쳤다.

평가요인에서 상황과 의복유형의 상호작용은 면접상황에서는 의복유형에 따른 차이가 많았으나 주말외출때는 차이가 거의 없었다. 면접시험때 정장은 긍정적인 평가적 인상을 주었으나, 캐주얼은 강한 부정적 인상을 주었다. 주말외출에는 유형에 관계없이 중간보다 약간 긍정적인 평가적 인상을 받았다. 의복유형과 형태의 상호작용은 [그림 1]와 같으며 정장에서는 의복형태에 따른 평가요인의 인상차이가 캐주얼보다 더 두드러졌다. 즉 기본형의 정장은 극히 긍정적인 평가적 인상을 주었고, 한편 유행형은 정장과 캐주얼 모두에서 부정적인 평가적 인상을 주었으며 캐주얼의 경우 좀더 부정적이었다.

의복 형태와 색상의 상호작용은 [그림 2]에 제시된 바와같다. 기본형은 색상에 따른 차이가 적은 긍정적인



[그림 1] 평가요인의 인상에 대한 의복유형과 형태의 상호작용효과 : 신분상징추구집단



[그림 2] 평가요인의 인상에 대한 의복 형태와 색상의 상호작용효과 : 신분상징추구집단

평가적 인상을 주었으나 유행형인 경우 색상에 따른 차이를 보여 기본색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활동성요인에서, 상황과 의복유형의 상호작용은 캐주얼의 경우 두상황 모두에서 활동적으로 지각되었으나 정장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특히 주말외출때는 비활동적으로 지각되었다.

독특성요인에서 상황과 의복유형의 상호작용의 경우 면접때는 의복유형에 차이없이 다소 독특한 인상을 받았으나, 주말외출때는 유형에 따른 차이가 있어 캐주얼은 독특하지 않은 것으로, 정장은 보통정도로 지각되었다.

응답자의 의복태도에 따라 분류된 추구 집단별로 상황 및 의복단서가 착용자의 인상에 미친 의미있는 영향의 분석 결과를 요약 비교하면 <표 7>과 같다.

집단별로 착용자의 인상에 미친 독립변인의 영향을 보면 유행추구집단 4개, 실용·안락감 추구집단 4개, 신분상징추구집단은 12개로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상황, 의복의 유형 형태 및 색상은 세집단 모두에서 착용자의 인상에 영향을 미쳤으나 집단 또는 인상 요인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났다. 즉 독립변인의 영

향은 유행추구집단과 실용·안락감 추구집단의 경우는 활동성요인에, 신분상징추구집단의 경우는 평가요인에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의복유형은 세집단 모두에서 활동성요인의 인상에 영향을 미쳤으며, 의복형태는 신분상징추구집단과 실용·안락감추구집단에서 평가요인과 독특성요인에 영향을 미쳤으며, 유행추구집단에서는 활동성요인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상황은 유행추구집단과 신분상징추구집단에서 평가요인에 영향을 미쳤고, 또한 신분상징추구집단에서 유형과 상호작용하여 3개 인상요인 모두에 영향을 미쳤다.

2. 상황적 적절성과 인상요인과의 관련성

1) 상황적 적절성

의복의 상황적 적절성에 대한 의복태도 집단에 따른 결과를 상황별로 비교하면 격식차린상황(면접시험, 매일출근, 결혼식)에는 세집단 모두 정장차림이 적절하다고 응답했고 격식을 차리지 않은 상황(학교등교, 주말외출, 영화관람)에는 캐주얼차림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의복의 유행성으로 조작된 형태나 색상의

<표 7> 독립변인(상황 및 의복단서)과 응답자의 의복태도가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검정 결과의 요약

요인		응답자구분			
		독립변인	유행추구 집단	실용·안락감추구 집단	신분상징추구 집단
평가 요인	상황*			*
	의복유형 형태 색상****** ***
상호작용효과					상황×유형*** 유형×형태* 형태×색상*
활동성 요인	상황**	*
	의복유형 형태 색상 ** *** ***
상호작용효과					상황×유형*
독특성 요인	상황**
	의복유형 형태 색상 *** ***
상호작용효과				유형×형태***	상황×유형*
계			4개	4개	12개

* p<.05, ** p<.01, *** p<.001

구분없이 학교등교는 모든 캐주얼, 결혼식은 모든 정장 차림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여 두 상황은 유행을 따르는 의복착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면접시험과 매일출근에는 유행추구집단의 경우 기본 형태의 기본색상 정장(SS_BC_B), 실용·안락감추구집단의 경우 면접시험에 기본형태정장과 유행형태의 기본색상 정장(SS_FC_B)을 적절하다고 응답했으며 매일출근에는 기본형태의 정장(SS_BC_F, SS_BC_B)과 기본형태의 유행 색상 캐주얼(JS_BC_F)을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스포츠나 스포츠에는 유행추구집단의 경우 기본형태 유행색상캐주

얼(JS_BC_F), 신분상징추구집단은 유행형태의 유행색상 캐주얼(JS_FC_F)을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격식차린 상황(직장면접, 매일 출근)에는 기본형태나 기본색상의 의복착용이 적절하고 격식차리지 않은 상황은 유행을 따르는 옷차림이 적절한것으로 나타났다.

2) 상황적 적절성과 인상요인과의 관련성

상황적 적절성과 인상요인과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의복착용자 인상이로부터 도출된 3개 요인에 대한 인상점수와 착용자의복의 상황적 적절성 점수사이의

<표 8> 의복의 상황적 적절성과 인상요인과의 상관관계(γ)

상 황	인상요인		
	평가 요인	활동성 요인	독특성 요인
직장면접 상황의 적절성	.66**	-.27**	-.22**
주말의출 상황의 적절성	.07	.63**	.32**

<표 9> 의복착용자 선호 및 유행성 평가와 인상요인과의 상관관계(γ)

평가내용	응답자	인상요인		
		평 가	활동성	독특성
선호 평가	유행추구집단	.64**	.16	.03
	실용·안락감추구집단	.47**	.08	.02
	신분상징추구집단	.69**	.12	.01
유행성 평가	유행추구집단	.28*	.25*	.30*
	실용·안락감추구집단	-.23*	.07	.14
	신분상징추구집단	.07	.14	.25**

** p<.01 * p<.05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의복태도에 따라 구분된 집단들은 자극물의 상형적 적절성과 인상요인과의 관련성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면접시험때 착용자 의복의 적절성은 평가요인과는 의미있는 정적상관을 나타냈고, 활동성, 독특성요인과는 의미있는 낮은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즉 착용자의 의복이 면접시험에 적절하다고 평가할수록 좋은 평가적 인상을 형성하나 반면에 비활동적이고 독특하지 않은 인상을 주었다.

주말외출상황에서 착용된 의복의 적절성은 평가요인과는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없었고 활동성 및 독특성 요인에서는 의미있는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따라서 주말의 외출시에 적절한 의복의 착용은 활동적이고 또한 독특한 인상을 주었으며 착용자의 인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의복착용자 선호 및 유행성 평가와 인상요인과의 관계

1) 의복착용자 선호 및 유행성

자극물에 대한 선호를 조사한 결과 정장착용자에서는 선호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기본형태의 유행색상 정장 착용자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캐주얼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의복착용자에 대한 유행성평가의 평균점수를 의복유행별로 비교해 보면, 정장착용자의 경우 유행형태의 정장 두가지색에서, 캐주얼은 유행형태의 유행색 캐주얼 착용자에서 유행성점수가 높았다. 따라서 정장의 경우 유행형태는 의복의 색상에 관계없이 유행을 따른다고 평가되었다.

2) 의복 착용자 선호 및 유행성평가와 인상요인과의 관련성

의복착용자의 선호평가 및 유행성평가와 의복착용자로부터 도출된 인상요인과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선호평가는 응답자의 의복태도에 따른 차이가 없이 인상 요인과는 의미있는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고, 한편 활동성, 독특성요인과는 의미있는 관계가 없었다. 따라서 응답자가 착용자를 선호할 수록 좋은 평가적 인상을 형성하였다.

유행성평가와 인상요인과의 관련성은 응답자집단에 따른 차이를 나타냈다.

유행추구집단은 유행성평가와 모든 인상요인과의 의미있는 낮은 정적상관을 보여, 착용자의 의복이 유행을 따른다고 느낄수록 좋은 평가적 인상과 활동적이고 또한 독특하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실용·안락감추구집단은 평가요인만이 의미있는 낮은 부적상관을 나타내어 착용자의 의복이 유행을 따른다고 느낄수록 부정적인 평가적 인상을 형성하였다. 신분상징추구집단의 경우 유행성평가와 독특성요인만이 의미있는 낮은 정적상관을 보여 착용자의 의복이 유행을 따른다고 느낄수록 독특하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V. 논 의

본 연구의 연구방법에서의 문제점, 연구문제로 설정되었던 가설을 점검한 결과에 대하여 문헌조사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의복태도에 의한 집단구분

본 연구의 의복태도변인으로 선정된 것은 독립변인(상황, 의복유형, 형태 및 색상)의 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동시에 남성들에게 중요한 것으로 선행연구 결과에서 보고된 4가지 측면, 즉 유행관심, 동조성, 신분상징성, 실용·안락감이었다.

4측면(유행관심, 동조성, 실용·안락감, 신분상징성)의 의복태도에 대한 평균점수를 응답자별로 산출하여 군집분석을 한 결과 집단 1은 다른집단에 비하여 유행관심이 높아 유행추구집단으로 명명되었으며 전체의 19.1%를 차지한다. 집단 2는 다른집단에 비해 동조성과 실용·안락감에 대한 관심이 높아 실용·안락감 추구집단으로 명명되었고 전체의 26.4%를 차지한다. 집단 3은 전체의 56.3%를 차지하면 4측면의 의복태도에 대한점수가 전반적으로 높았고 특히 신분상징성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분상징추구집단으로 명명되었다.

의복태도에 따라 조사대상을 위의 세집단으로 구분한 이유는 각 집단에 빈도가 고르게 분포되면서 의복태도에 따라 조사대상을 동시에 4측면의 의복태도가 뚜렷하게 차이하도록 집단을 구분하기 위하여 여러번에 걸쳐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특히 과반수이상의 응답자로 구성된 신분상징추구집단은 더 이상 세분화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집단을 특징적인 몇개 집단으로 좀더 세분화하기 위해서는 남자들에게 중요한 다른 측면의 의복태도(예: 예의성)를 포함시켜 연구함으로써 가능할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신분상징추구집단의 빈도가 높은 것은 우리나라 성인남자들이 품위있는 의복, 자신의 지위나 신분을 나타내는 의복에 관심이 높다고 설명될 수 있다.

이들 세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는 뚜렷하게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유행추구집단에는 중년층보다 대학생이, 신분상징추구집단에는 대학생보다 중년층이 더 많았고, 실용·안락감추구집단은 유행추구나 신분상징추구집단보다 경제수준이나 학력이 낮았다.

2. 응답자의 의복태도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상황, 의복유형 및 형태는 의복태도로 구분된 세집단(유행추구집단, 실용·안락감추구집단, 신분상징추구집단)모두에서 인상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고, 인상의

요인에 따라 영향력이 따르며 색상은 신분상징추구집단의 평가요인에만 형태와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쳤다.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상황, 의복단서의 영향은 신분상징추구집단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분상징추구집단이 전반적으로 4측면의 의복태도에 대한 점수가 높았으므로 의복에 대한 중요성과 많은 관심이 자극물속의 의복단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1) 유행추구집단

유행추구집단의 경우 다른집단과 달리 의복형태(유행형/기본형)가 활동성요인의 인상에 영향을 미쳐 유행형태 의복착용자를 활동적으로 지각하였다.

2) 실용·안락감추구집단

실용·안락감추구집단은 다른 두집단보다 유행관심이 낮은 집단으로서 특히 유행형태에 부정적인 평가적 인상을 형성했고 유행형정장은 독특한 것으로 지각했다. 따라서 타인에 대한 인상형성시 지각자 자신의 의복태도가 반영되어 타인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의복태도는 인상형성시 주의력 강화 또는 지각자의 인상평가 기준을 완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3) 신분상징추구집단

신분상징추구집단은 상황과 의복유형이 상호작용하여 모든 인상요인에 영향을 미쳤고 특히 면접상황에 정장, 기본형태, 기본색상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적 인상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황에 대한 의복규범을 더 뚜렷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의복의 신분상징성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은 보수적인 의복태도를 가진다는 Knees²⁹⁾의 진술을 지지한다.

이상의 결과에서 의복태도에 의해 구분된 세집단의 차이는 지각자가 의복의 여러 단서중 어떤것에 주의를 집중하는가에 따라 나타난 결과이다. 즉 관심을 두어 온 사건은 지각하여 여러 단서중에 선택적주의(selective attention)를 일으키고, 이때 태도나 의복의 유사성은 좀 더 긍정적인 인상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응답자의 의복태도에 따라 인상형성에 차이가 있었으므로 <가설 1>은 긍정되었다.

3. 의복의 상황적 적절성과 인상요인과의 관련성

1) 상황적 적절성

의복의 상황적 적절성은 의복유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고 유행성 차원도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다. 격식차린 상황(직장면접, 매일출근)에서는 색상에 관계없이 기본형태정장이 적절했고 격식차리지 않은 상황에는 모든 캐주얼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결혼식은 모든 정장이 적절하나 특히 기본형태 기본색상정장이 적절했고 주말에는 모든 캐주얼이 적절하며 유행형태 정장도 착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태도에 따른 차이는 특히 실용·안락감추구집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면접시험때 기본형태 정장의 외의 유행형태정장 특히 유행형태의 기본색상 정장(SS_BC_B)이 적절하다고 응답했고 매일출근은 캐주얼 특히 기본형태의 유행색상 캐주얼(JS_BC_B)도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실용·안락감추구집단은 타집단에 비하여 의복규범에 대한 인식이 낮으며 의복의 실용성이나 착용시의 안락감을 더 중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은 결과는 연령이나 지위가 낮을수록 격식차린 상황에도 격식을 차리지 않은 의복차림을 수용하며 연령이나 직업 위세가 높을수록 평상시 격식차린 의복을 선호한다는 고애란¹⁶⁾의 결과와 일치한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격식차린 상황은 의복형태나 색상이 유행을 따르지 않는 옷차림이 적절하고 격식차리지 않은 상황은 유행을 따르는 옷차림이 더 적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는 자극물의 의복착용자가 20대인 경우이므로 연령이 달라지면 이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것으로 보이고, 착용자의 연령에 따라서 상황적 적절성의 차이를 규명하는 것도 요구된다.

전형적인 신사복과 캐주얼은 착용목적에 따른 적절성의 차이가 뚜렷하여 격식차린 상황에는 전형적인 신사복이, 격식차리지 않은 상황에는 캐주얼이 적절하며, 유행의복은 개인에 따른 수용의 폭이 넓으며 특히 유행형태의 정장은 formal한 남성의복규범과는 맞지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강혜원¹³⁾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면접과 같은 격식차린 상황에 적절한 의복의 선택에 개인적인 차이가 없는것은 의복규범이 명확하여 동조의 압력도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특정상황에

부과되는 압력의 정도가 적절한 행동의 범주를 결정하며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의복선택 범위가 적다. 이러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인상관리는 분명하게 정해진 의복규범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상황적 적절성과 인상요인과의 관련성

의복착용자의 인상은 착용자의복의 상황적적절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긍정되며, 면접시험때 의복의 상황적 적절성은 평가요인과는 정적상관, 활동성 독특성요인과는 부적상관을 나타내었고, 주말의출때 의복의 상황적 적절성은 활동성, 독특성요인과의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면접시험때는 의복이 적절할수록 긍정적인 평가적 인상과 비활동적이나 독특하지 않은 것으로 지각된것이며 주말의출때는 의복이 적절할수록 활동적이며 독특하다고 지각된것이다.

이러한 상황적 적절성과 인상요인과의 결과는 의복태도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귀인이론으로 설명될수 있다. 즉 상황은 자극단서를 특출하게 하는데 특히 면접상황에 부적절한 의복은 특출한 단서로 지각된다. 또한 여러 선택대안중에 개인의 자발적인 부적절한 의복착용행위는 의복규범과 맞지않아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착용자의 내적특성, 의도, 태도, 능력등으로 원인귀속하게 한다. 즉 면접상황에 부적절한 의복착용은 부정적인 평가적요인의 인상을 형성하는 것으로 풀이되며 그러나 의복의 선택폭이 다양한 주말의출때는 적절한 의복착용자에 대해 평가적요인의 인상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4. 의복착용자 선호 및 유행성평가와 인상요인과의 관련성

1) 의복착용자의 선호 및 유행성평가

의복착용자(자극물)에 대한 선호평가에서 기본형태의 유행색상 정장착용자를 가장 선호하였고 캐주얼에는 선호평가 점수에 차이가 없었다. 의복착용자의 의복에 대한 유행성평가의 경우 정장은 색상에 관계없이 유행형태를, 캐주얼은 유행형태의 유행색상 캐주얼이 가장 유행을 따른다고 평가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우리나라 남성들은 기본색상 보다는 유행색상을 더 선호하며 또한 의복의 형태적 측면보다는 색상에서 유행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자극물속의 의복에 대한 유행성 평가에서 정장의 경우 유행색과 기본색이 유행성에 대한 차이가 없

었으며 이는 앞에서 인상에 미치는 색상의 영향이 작은 것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2) 의복착용자에 대한 선호 및 유행성평가와 인상요인과의 관련성

착용자에 대한 선호는 응답자의 의복태도와는 관계없이 평가요인에만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착용자를 선호할수록 긍정적인 평가적 인상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인지각의 제 2단계에서 이루어진 의복착용자에 대한 선호가 인상형성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적 인상요인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냄으로 초기에 형성된 즉각적인 정서반응은 후에 형성되는 인상에 영향을 미쳐 일관성있는 평가를 한다는 기존의 이론²⁰⁾을 지지한다. 즉 개인은 인지적으로 복잡하나 평가적으로는 단순하며 이는 일관성있게 대인지각과정에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유행성평가와 인상요인과의 관계는 의복태도에 따른 차이를 보여 유행추구집단은 착용자의 의복이 유행을 따른다고 느낄수록 긍정적인 평가적 인상과 활동적이며 독특하다고 지각하였다. 실용·안락감추구집단은 착용자 의복이 유행을 따른다고 느낄수록 부정적인 평가적 인상을 형성하였고, 신분상징추구집단의 경우는 독특하다고 지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의복에 대한 관심이 타인을 지각할때 의복단서의 사용을 통해 나타나고 또한 이는 의복단서 사용의 민감성에 영향을 준다는 Kaiser¹⁰⁾의 진술을 지지한다.

IV.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임의표집에 의하여 피험자를 설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학생과 white collar에 해당되는 중년의 직장남성으로 제한하였다.

둘째, 인상형성 연구를 위한 자극물속의 의복은 실생활에서 착용되는 의복유행중 정장(suit)과 캐주얼(jumper style)만을 사용하였고 다양한 의복의 속성중 의복의 형태와 색상만을 두가지 수준의 유행성차원으로 조작하여 적용했다.

본 연구에서는 의복이 일상생활에서 타인에 대한 추리를 가능하게 하는 단서로 사용되며, 응답자의 의복태도에 따른 인상의 차이를 밝히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문화안에서 남자들의 의복행동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또한 남자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응답자의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며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응답자의 직업을 달리하거나(예: 육체노동자) 또는 직업을 좀더 세분화하여 직업유형에 따른 남자의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도 요구된다.

둘째, 다양한 의복유형에서 유행성 차원의 의복단서의 의미를 밝힐 수 있다고 본다.

셋째, 의복유형내의 의복단서로 질감이나 무늬등을 이용한 연구도 요구되며 의복형태와 색상을 각 수준에서 여러개의 형태나 색상을 선정하여 연구할 수도 있고 또한 유행성차원을 다양한 수준(혁신적인것, 대중적인것, 유행이지난것)으로 조작하여 연구하는 것도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1) Bell, E.L.(1991). Adult's Perception of Male Garment Style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10 (1), 8-12.
- 2) Schneider, D.J., Hastrof, A. & Ellworth, P.C.(1979). *Person Perception*(2nd.), Addison-Wesley Pub. Co.
- 3) 조 금호(1982). 대인 지각 차원의 이원성에 관한 연구 -호오성과 화친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4) Fiske, S.T. & Taylor, S.E.(1984), *Social Cognition*, Mass: Addison-wesley Pub., Co., Inc.
- 5) 강혜원(1984), 의상 사회심리학, 서울: 교문사.
- 6) Pinaire-reed, J.A.(1979). Fashionability and Perceived Similitude, *Perceptual and Motor Skill*, 48, 571-576.
- 7) Buckley, H.M. & Roach, M.E.(1981). Attraction as a function of attitudes and dres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0(1) 88-97.
- 8) Heider, F. (1944). Social Perception and Phenomenal Causality, *Psychological Review*, 51. 358-374.
- 9) Jones, E.E. & Davis, K.E.(1965). From Acts to Disposition: The Attribution Process in Person Perception, In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 PP. 219-266). N.Y.; Academic Press.
- 10) Kaiser, S.B.(1985).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N.Y.; McMillan. Kaiser-Evans, K. & Damhorst, M. L.(1978), Impression Formation: Use of Descriptors of Personal Trait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46,

- 903-906.
- 11) Bixler, S.(1984). *The professional Image*, N.Y.; G.P. Putnam's Sons.
 - 12) Fürstenberg, E.V. & C. Durie.(1978), *The Power Look*, Fawcett Columbia: CBS Inc.
 - 13) 강혜원, 고애란, 박은주(1988), 대학생의 의복행동과 심리적특성과의 관계, 연세논총, 제28집, 333-359.
 - 14) 고애란(1983). 성인 남자의 의복행동과 강화통제 및 신체적만족과의 연구, -의복의 수용, 신분상징성, 만족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5) 남미우, 강혜원(1994), 상황 의복단서 및 관찰자의 연령이 남자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 의류학회지, vol. 18 No. 3.
 - 16) Kahng, H.(1971). Clothing Interests and Clothing aspirations associated with selected social-psychological factor for a group of college women in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 State Univ.
 - 17) 이경손(1979). 성인 남자의 자아개념과 의복행동과의 상관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8) 이금실(1978). 의복의 신분상징성과 사회심리학적 변인과의 상관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9) 김원옥(1984). 직업여성의 의복행동과 직업만족에 관한 분석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 박광희(1984). 여고생들의 의복행동과 성격특성과의 상관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1) 박혜선(1982). 의복에 대한 의미분별도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 논문.
 - 22) Adames, A.E.(1972). Clothing Acceptance for The Self and for Others and Adherence to Selected Clothing Norms as Related to Selected Aspects of Personality in A Sample of Black College Ma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 State Univ.
 - 23) Kness, D.M.(1971). The Clothing Attitudes and Social-Political Beliefs of University Men Identified as Conservatives and Hippy Dressers, Penn State Univ, Masters Thesis, Home Economics Reserch Abstracts.
 - 24) Freedman, J.L., Sears, D.P. & Carlsmith, J.M.(1981). *Social Psychology*(2nd ed.), N.Y.; Prentice-Hall Inc.